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로 살펴보는 독도의 한국 영토 정당성

목차

1

1. 신라의 우산국 정벌

-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시작

2

2. 조선 시대의 독도 기록

-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
- 울진현 소속으로 기록

3

3. 안용복 사건

- 1693년 안용복 사건
- 울릉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

4

4. 일본의 독도 인식

- 태정관 지령
- 시마네현 고시의 문제점

5

5. 국제법적 근거

-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6

6. 현재와 미래의 독도

- 독도의 현재 상황
- 미래를 위한 독도 수호 방안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
- 우산국: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지역
 - 신라의 영토로 편입
- 한국 영토의 역사적 시작점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시작

- 우산국 정복으로 울릉도와 독도 확보
 - 신라의 동해안 영역 확장
 - 해양 세력 강화의 계기
- 독도의 한국 영토 역사 시작

『동국문헌비고』의 기록

- 1770년 편찬된 조선의 관찬서
-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 우산도를 일본의 송도(松島)와 동일시
 - 독도에 대한 조선의 인식 확인

조선 시대의 독도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두 섬의 지리적 관계와 행정적 소속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핵심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관계

-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
-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
- 울릉도에서 보이는 유일한 섬은 독도

울진현 소속으로 기록

-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기록
- 조선의 행정 체계 내 독도의 위치 확인
- 독도에 대한 조선의 실효적 지배 증거

안용복 사건 (1693년)



안용복 장군 동상 /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안용복과 박어둔의 일본 억류

- 1693년 울릉도에서 어업 중 일본에 억류
-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 의해 납치
- 일본으로 끌려감
- 조선과 일본 간 외교 문제로 비화
-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 증가
- 안용복의 적극적인 대응 시작

上許之命移因營下因禮曹判書柳命賢言贈李壽慶當品文職李德周丁昌壽亞卿職蓋命賢以壽慶等庚壬年問究死事請褒贈之壽慶在凶黨中尤邪毒乙卯首論宋時烈遠竄命賢等必欲抽獎之有是請○癸丑夜月犯昴星流星出婁星下入坤方○乙卯命諸承旨持公事入侍裁決○丁巳接慰官洪重夏辭陸左議政陸來善右議政閔黈與重夏同為請對重夏言倭人所謂竹島即我國鬱陵島今以為不關而棄之則已不然則不可不預為明辨且彼若以人民入接則豈非他日之憂乎來善黈俱以為倭人之從入民戶既不能的知此是三百年空棄之地因此生釁矣亦非計也上從黈等言蓋蔚山漁人自海邊漂至鬱陵島島上三峰接天中有數十戶人家遺址草木則多竹葦禽獸則多鳥禽猶狸為倭人所執去自其島至伯耆洲七晝夜時使請以犯境之罪罪漁人太宗朝宰臣申叔舟浮海入鬱陵島記其形止而求今漁人所言與其記言相符讀者皆以為此明是鬱陵島而廟堂乃以為等棄之地而不欲辨爭其計誤矣○戊午以柳命賢為大司憲李寅賓為司諫李國華為堂令李相勛為文學○庚申以李允文為正言崔恒齊為輔德○云云引見大臣備局諸臣上因閣就道言命特減濟州貢鰲一千點史曹判書李玄逸請行鄉

울릉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

-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 분쟁 발생
- '울릉도 쟁계'로 알려진 외교 갈등 시작
-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발
-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 주장 강화
- 일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이어짐
- 독도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전환점

조선의 울릉도 수토 정책

장한상의 울릉도 조사

- 1693년 안용복 사건 이후 실시
- 울릉도의 현황 파악이 목적
- 조선의 영토 관리 의지 표명

남구만의 건의

- 영의정 남구만이 정기적 수토 제안
- 울릉도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일본의 침탈 방지 목적

수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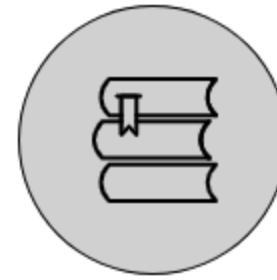
- 숙종이 남구만의 건의 수용
- 정기적 수토 정책 확립
- 울릉도에 대한 관리 강화

2년마다 관원 파견

- 2년마다 관원 파견 결정
- 울릉도의 지리와 자원 조사
- 불법 어로 활동 감시 및 단속

일본의 울릉도·독도 소 속 확인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돗토리번에 질문을 보냈다. 이는 당시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조치였다. 돗토리번의 답변은 일본의 독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막부의 질문

- 1695년 12월 24일
- 울릉도 소속 확인 요청



돗토리번 답변

- 1695년 12월 25일
- 두 섬은 돗토리번 소속 아님



일본령 아님

- 울릉도와 독도 모두 해당
-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



외교적 의미

- 조선 영유권 인정의 계기
- 향후 정책 결정의 근거

일본의 도해금지령 (1696년)



막부의 결정

- 울릉도·독도 비일본령 확인
- 1696년 1월 28일 발령
- 에도 막부의 공식 결정



금지령 내용

- 다케시마 (울릉도) 도해 금지
- 일본인의 울릉도 방문 전면 금지
- 위반 시 처벌



외교문서 교환

- 조선과 일본 간 문서 교환
-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
- 외교적 해결 모색



조선령 확인

- 1699년 공식 확인
- 울릉도의 조선령 인정
- 독도 포함 암묵적 동의

안용복의 제2차 도일 사건 (1696년)

사건 발단

- 울릉도에서 일본 어선 발견
- 불법 어로 활동 적발
- 안용복의 자발적 추격 결정

오키섬 진술

- 오키섬 관리에게 진술
-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설명
- 역사적 근거 제시

조선 정부

- 안용복의 무단 도일 비난
- 사후 처벌 논의
- 외교적 마찰 우려

독도 대응

- 일본 어선을 독도까지 추격
- 독도에서 일본인 추방
- 조선 영토임을 강력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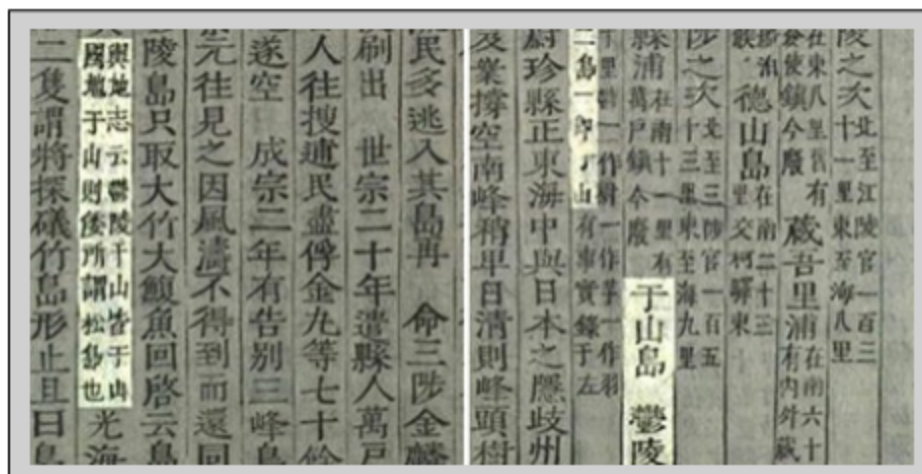
일본 반응

- 안용복의 주장에 당황
- 조선과의 외교 문제 우려
- 막부에 사건 보고

역사적 의의

- 조선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 일본의 독도 인식 변화 계기
- 양국 간 영토 분쟁의 시발점

동국문헌비고의 독도 기록



우산도와 울릉도 설명

-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함께 언급
- 두 섬이 서로 가까이 있다고 설명
 - 우산국의 영토로 기록
 -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인식

송도와 우산도의 동일성

- 일본이 부르는 송도(松島)가 우산도임을 명시
- 독도의 일본 명칭을 인지하고 있었음
- 조선과 일본 간의 지리 인식 차이 확인
 -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

일본 외무성의 조선 시찰 보고서 (1870년)

사다 하쿠보의 보고서와 일본 외무성의 독도 인식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보가 조선을 시찰한 후 제출한 보고서는 독도의 역사적 소속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후속 독도 편입 시도와 대조되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입니다.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조선 부속

- 보고서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 언급
- 두 섬의 지리적, 역사적 연관성 인정
- 조선의 영유권 암묵적 승인

일본 외무성의 독도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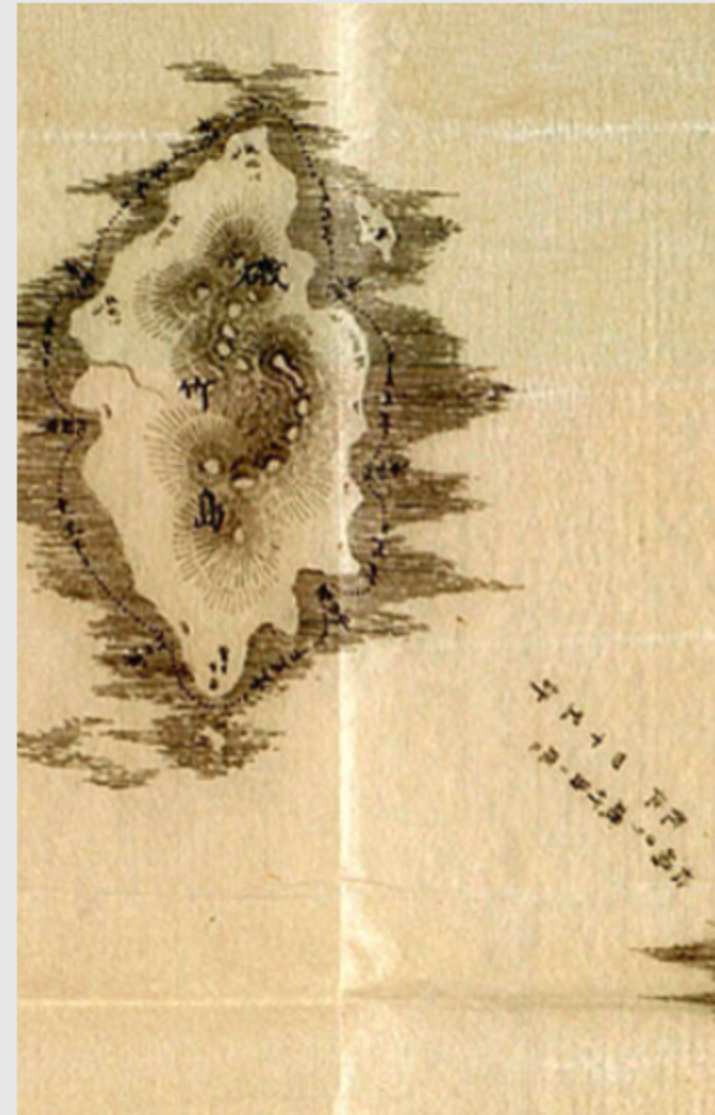
- 초기: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
- 중기: 영유권 주장 시작
- 후기: 적극적인 영토 편입 시도

일본 태정관 지령 (1877년)



태정관의 울릉도와 독도 관련 지령

- 1877년 3월 발령
-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작성
-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
- 17세기 울릉도쟁계 결과 반영
-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
-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



일본과 무관함을 명시

-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중요 문서
- 이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와 모순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력한 근거
-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일본의 현재 주장과 상반되는 역사적 증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발표
- 울릉도의 행정 구역 명칭 변경
- 지방 행정 체계 개편의 일환
- 울릉도의 중요성 인식 반영

도감을 군수로 개정

- 기존 '도감(島監)' 직위를 '군수'로 승격
- 행정 권한 강화 의미
- 중앙 정부의 관리 강화 의도
-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

울도군 관할 구역에 석도(독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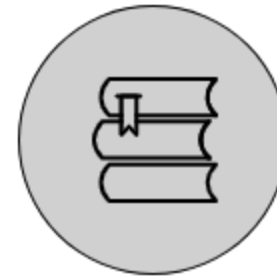
- 칙령 제2조에 명시
- '울도군 관할' 구역 규정
- 울릉 전도, 죽도, 석도(독도) 포함
- 독도의 법적 지위 명확화

칙령의 국제법적 의의

- 대한제국의 주권 행사 증거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인
- 국제법상 영토 권원 확립
-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 문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고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로, 당시 한국의 외교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 1905년 2월 22일 발표
-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
- 시마네현 관할로 일방적 편입



러일전쟁 중 군사적 필요성

- 러일전쟁 중 전략적 요충지
- 해군 감시 기지로 활용 목적
- 군사적 이해관계 반영



불법적 영유권 침해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무시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침해
- 국제법 원칙 위반 행위



국제법적 효력 부재

-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
- 한국의 외교권 제한 상태 악용
- 국제법상 영토 취득 요건 미충족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1906년)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 방문

- 1906년 3월 방문
- 일본의 독도 편입 통보
- 울도군수의 즉각적 대응
- 불법 편입에 대한 항의
- 한국 정부의 대응 촉구



독도의 울도군 소속
확인

- '본군 소속 독도' 명시
- 울도군의 관할권 재확인
- 독도의 법적 지위 강조
- 일본 주장의 부당성 지적
- 역사적 영유권 주장 근거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

- 1906년 4월 29일 보고
- 일본의 불법 행위 상세 기록
- 독도 소속 문제 공식화
- 중앙정부 개입 요청
- 외교적 대응 필요성 제기



내부(內部)에 보고

- 중앙정부 최고 행정기관 보고
- 독도 문제의 중요성 강조
- 국가적 차원의 대응 촉구
- 외교적 항의 건의
- 실효적 지배 강화 요청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1946년)

SCAPIN 677호

- 1946년 1월 29일 발표
-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 제외
-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

독도 제외

- SCAPIN 677호의 내용 재확인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인정
- 일본의 독도 관련 행정권 박탈

일본 통치

-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국의 결정
- 일본 영토 범위 재정립
-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부정

SCAPIN 1033호

- 1946년 6월 22일 발표
- 일본 선박 및 국민의 독도 접근 금지
-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접근 금지

- 일본 어선의 독도 주변 조업 금지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 차단
-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

연합국 결정

-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권위로 발표
-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
- 독도 영유권 문제에 중요한 근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일본의 한국 독립 인정

-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한 조약
- 연합국과 일본 간 체결 (1951년 9월 8일)
- 일본의 한국 독립 공식 인정
-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한국에 대한 권리 포기

- 조약 제2조(a)항에 명시
-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함한 한국 언급
-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 포기 선언
- 한국 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권 상실

독도의 한국 영토 포함 해석

-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 않음
- 한국의 3천여 개 도서 중 일부만 예시
- 울릉도 포함은 독도도 포함됨을 의미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



결론: 우리의 영토 독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실효적 지배와 다양한 문헌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독도 수호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영유권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독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독도의 역사적 의미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그 중요성이 입증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닌 한국의 영토 주권과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다양한 역사적 문헌, 그리고 국제법적 근거들은 독도가 한국의 불가분한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역사적 정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진 한국의 영유권

- 신라 시대 우산국 복속 (512년)
- 조선 시대 관찬서의 독도 기록
- 안용복 사건을 통한 영유권 주장

국제법적 근거와 현재의 중요성

-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원칙 적용
- SCAPIN,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근거
- 독도 수호의 현재적 의미와 중요성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재



한일 간 지속되는 영유권 주장

-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
- 한국의 실효적 지배 유지
- 외교적, 학술적 대응 강화
- 독도 관련 교육 및 홍보 확대
- 독도 방문 및 관리 체계 강화
- 독도 관련 연구 지원 확대
- 국민적 관심과 지지 유지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문제

-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 국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 해외 언론 및 교과서 대응
- 국제법적 지위 강화 노력
- 주변국과의 외교적 균형 유지
- 독도 관련 국제 여론 형성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독도 수호를 위한 노력

정부의 독도 정책

-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정책 수립
- 독도 관리 예산 확대 및 시설 개선
- 독도 경비 및 해양 주권 수호 강화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활동

- 독도 수호 단체 활동 지원
- 독도 관련 문화행사 및 캠페인 진행
- 독도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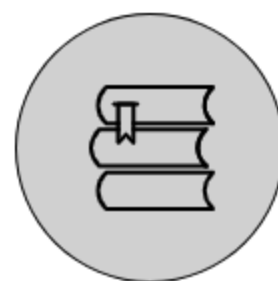
- 해외 언론 및 학계 대상 홍보 강화
 -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참여
- 다국어 독도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독도 연구 및 교육 강화

- 독도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지원
- 학교 교육과정에 독도 교육 강화
- 독도 관련 학술 연구 지원 확대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는 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은 지리적, 생태학적,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호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

- 동해 한가운데 위치
-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



생태계

- 다양한 해양 생물 서식
- 희귀 조류의 번식지



환경 보호

- 생태계 보존 노력
- 방문객 제한 정책



지질학적 가치

- 화산암의 지질학적 가치
- 해양 자원 연구의 중요성

독도 방문 및 관광

방문 절차

- 사전 예약 필수
- 신분증 지참
- 기상 조건 확인

주의사항

- 자연환경 보호
- 안전 수칙 준수
- 제한 구역 출입 금지

관광 명소

- 독도 등대
- 독도 박물관
- 독도 전망대

교통편

- 울릉도에서 페리 이용
- 헬기 이용 가능
- 계절별 운항 일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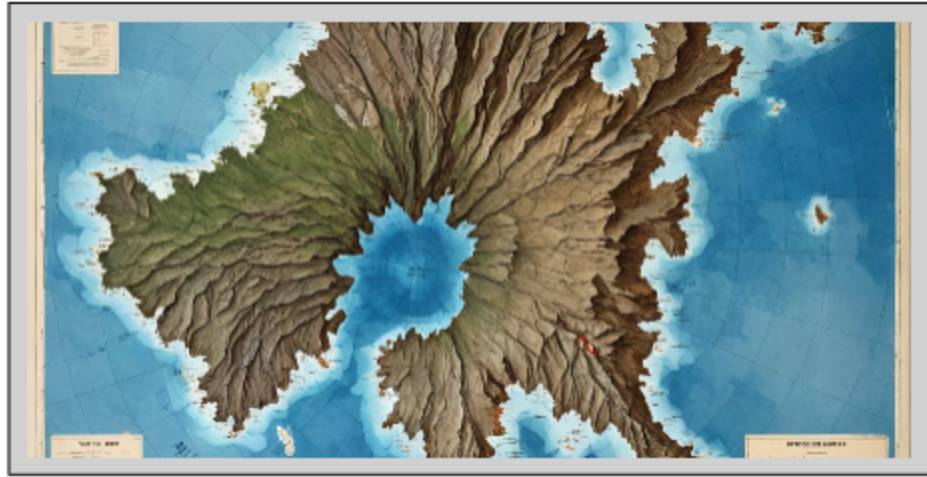
숙박

- 독도에서 숙박 불가
- 울릉도 숙박 시설 이용
- 사전 예약 권장

체험 활동

- 독도 해양 생태 관찰
- 독도 역사 탐방
- 독도 사진 촬영

독도 연구 현황



독도 관련 학술 연구

- 독도의 지질학적 연구 진행
-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독도의 역사적 근거 연구
- 독도 관련 법적 지위 연구

독도 전문 연구 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해양조사원
- 경상북도 독도연구센터

국제 학술 교류

- 국제 학술 회의 개최
-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 독도 관련 국제 심포지엄
- 독도 연구 성과의 국제적 발표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

독도와 동해의 명칭은 한국의 역사적, 지리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명 논쟁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 과제입니다.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는 한국의 역사적 영토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의 공식 사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명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동해 표기 노력

-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 병기 요청
-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동해 표기 주장
- 해외 지도 제작사들과의 협력 강화

지도 제작 및 교과서 표기 문제

- 국내외 교과서의 독도와 동해 표기 모니터링
- 해외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
- 디지털 지도 서비스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독도의 경제적 가치



주변 해역의 자원

- 풍부한 해양 생물 자원
-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가능성
- 해양 광물 자원 존재
- 해양 생태계 연구의 가치



어업권 및 미래 자원 개발

- 한일 어업협정 관련 중요성
-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보
- 해저 자원 개발 잠재력
- 해양 에너지 활용 가능성

독도와 한일 관계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양국 간 긴장 관계 조성
- 경제, 문화 교류에 부정적 영향
- 역사 인식 차이 심화

외교적 해결 노력

- 지속적인 외교 채널 유지
- 학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국제법적 해결 방안 모색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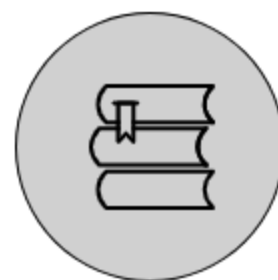
- 역사 문제와 경제 협력 분리 접근
- 공동 이익 창출 영역 발굴
- 민간 교류 활성화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문제

-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입장 표명
- 국제 학술회의 통한 홍보 강화
- 제3국 지지 확보 노력

독도 수호의 미래 전략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적 대응, 연구 강화, 국제 지지 확보, 실효적 지배 강화 등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국제법적 대응 방안

- 역사적 권원 입증 자료 축적
- 국제재판소 대비 법리 개발



연구 및 교육 강화

- 독도 관련 학술 연구 지원 확대
- 초중고 독도 교육 체계화



국제 사회 지지 확보

- 독도 홍보 외교 강화
-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



실효적 지배 강화

- 독도 거주민 지원 정책 강화
- 독도 관리 시설 현대화

독도에 대한 국민 인식



국민 여론 동향

- 높은 관심도
- 영토 수호 의지
- 세대별 인식 차이
- 지속적 홍보 필요성



독도 교육 현황

- 교과서 독도 내용 강화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사 연수 확대
-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독도 사랑 실천

- 독도 방문 증가
- 독도 지킴이 활동
- 독도 관련 행사 참여
- SNS 홍보 활성화



미디어와 독도

- 독도 관련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 온라인 콘텐츠 확산
- 국제 미디어 홍보